

2026. 10. 30.(금)
보도시점 협의체 시작(14:00) 이후 배포 2026. 10. 30.(금)

대한민국-몽골 보건의료협력, 디지털 전환과 K-의료 인재양성 새 지평 연다

- 제7차 한-몽 보건의료협약체 개최로 보건의료협력 고도화 -
- 몽골 의료인 팀 기반 다학제 연수 도입으로 의료역량 강화 -
-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및 필수약품 공급망 구축 등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30일(금) 오후 2시, 외교부 양자회의실(서울 종로구)에서 몽골 보건부와 「제7차 한-몽 보건의료협약체」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몽골 보건부와 몽골 의료진의 다학제 협진 역량 강화를 위한 팀 기반 연수 도입과 디지털 헬스 전환을 위한 기술 지원, 그리고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의 몽골 공공조달 시장 진출 확대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에르데네바야르 남질(Erdenebayar Namjil) 몽골 보건부 사무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양국은 2011년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2018년(제6차)까지 보건의료협약체를 운영하였으며, 이번 회의는 8년 만에 차관급 정부 간 협의체를 공식 재개하여 보건의료 협력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제7차 협의체에서는 지난 7월 개정 체결된 「한-몽 보건의료 및 의학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 간 주요 현안과 실질적인 협력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몽골 의료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협력 확대

양국은 몽골 보건부의 '의사 및 전문인력 1,000명 양성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인 연수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난 3월 체결된 의료인 연수협력 약정의 결실로 오는 11월 2일부터 4주간 한국 의료기관에서 몽골 의료인 6명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특히,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개별 의료인 중심 연수에서 벗어나 몽골 보건부의 수요가 높은 암, 심장이식 2개 분야의 팀 기반 다학제 협진 역량을 집중 강화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도입되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몽골 정부가 국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2국립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암센터의 암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몽골 의료진 교육·연수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 의료AI 및 디지털 헬스 전환을 통한 보건의료 협력

한국은 지난 7월 22일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하며 국민이 일상에서 인공지능(AI) 의료혁신을 체감하고 전국 어디서나 첨단 AI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양국은 이를 토대로 몽골의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책 및 거버넌스, ▲보건의료정보시스템, ▲디지털헬스 기술,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 ▲인적 역량강화 등 분야에서 기술지원과 지식 공유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 접근성 및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

3. 의약품 품질향상 및 필수약품의 안정적 공급 협력 강화

한국과 몽골은 의약품 품질관리 및 필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몽골의 의약품 수입* 3위 국가로서 양질의 의약품 공급을 통해 몽골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해 온 핵심 파트너이다.

* 의약품 수입(25) : (1위) 독일 14.4%(425억원), (2위) 슬로베니아 13.6%(402억원), **(3위) 한국 12.3%(362억원)**
(출처 : ITC Trade Map(Mongolian Customs, HS 30))

이번 협의체에서 한국 측은 바이오시밀러 및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전문 위탁 개발·생산(CDMO,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역량 등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한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몽골의 ▲의약품 품질보증·관리, ▲시험·검사 역량 강화, ▲전문인력 교육·훈련 등 의약품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 및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몽골 보건부가 공공 의료 현장에 필수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단일 공급방식 의약품 공공조달 입찰’에 우수한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8년 만에 재개된 이번 보건의료협의체를 통해 몽골 의료진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팀 기반 연수 체계를 마련하고, 디지털 헬스와 의약품 조달까지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라며, “논의된 사항들이 몽골 국민의 건강증진과 양국의 보건의료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7차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개요

담당 부서 <총괄>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책임자	과 장 주 철 (044-202-2980)
		담당자	사무관 정정미 (044-202-2987)
담당 부서	보건산업정책국 제약바이오산업과	책임자	과 장 오성일 (044-202-2960)
		담당자	사무관 이지원 (044-202-2969)
담당 부서	건강정책국 질병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아 (044-202-2860)
		담당자	사무관 안은숙 (044-202-2866)
담당 부서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정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044-202-2610)
		담당자	서기관 김효리 (044-202-2615)
담당 부서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환 (044-202-2620)
		담당자	사무관 김민혜 (044-202-2625)

1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 10. 30.(금), 14:00 ~ 15:00
- (장소) 외교부 17층 양자회의실

2 주요 참석자

- (한국 측)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 (몽골 측) 보건부 에르데네바야르 남질 사무차관

3 주요 의제

- ① 몽골 의료인 연수
- ② 몽골 국비환자 송출
- ③ 몽골 제2국립암센터 설립 관련 인적역량 강화
- ④ 의료 AI 및 디지털헬스
- ⑤ 의약품 품질향상 및 공공조달

4 회의 순서

시 간		내 용
14:00~14:05	(05')	· 인사말 및 소개
14:05~14:45	(40')	· 의제 논의
14:45~14:50	(05')	· 제7차 보건의료협의회 합의의사록 서명식
14:50~15:00	(05')	· 마무리 말